

#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 '호남 대전'에서 결정되나

### 전체 권리당원 33% 차지...호남연설회 8월 3·4일 열려 당대표 '어대명' 분위기 속 이재명 호남 성적표 큰 관심 최고위원 최하위 민형배 의원, 마지막 추격 기회 될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대회가 28일 충청권까지 마무리되면서 최대 분수령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중 33.3% 가량이 호남에 몰려 있고, 호남 이후에 진행될 최대 표밭인 서울·수도권(39.7%) 투표에도 호남 표심이 큰 영향을 미칠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과 서울·수도권 등 73%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호남 성적표'에 따라 이재명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을 가능케 할 수 있고, 최고위원 순위와 당선 가능성도 사실상 결정된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 이후 4번째 도전만에 호남지역 국회의원인 민형배(광주 광산) 의원이 선출직 최고위원에 당선될지 여부도 오는 8월 3·4일 치러질 호남 투표에서 사실상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충남·충북지역 29만 7109명(23.9%) 권리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어 8월 3일 전북, 4일 광주와 전남에서 시당대회와 합동연설회를 한 뒤 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같은 달 경기(10일)와 대전·세종(11일)에 이어 서울(17일)지역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전국당원대회(18일)를 끝으로 경선 일정을 마무리한다.

현재 투표를 마무리하지 않은 지역의 권리당원은 호남과 서울·경기에 대거 분포돼 있다. 실제, 광주 10만4095명, 전남 15만7229명, 전북 15만2551명으로 호남 당원만 모두 41만3875명이다. 또 서울 21만5173명, 경기 27만7474명으로 수도권 당원만 49만2647명이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세종 7704명, 대전 3만907명(3만8611명·3.1%)을 포함하면 앞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53만1258명(76.1%)에게 아직 투표권이 남아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호남 표심'이 이번 민주당 경선대회 최종 성적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90%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의 최종 득표율도 호남의 선택에 따라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가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속칭 '어대

명' 분위기에서 치러지는 만큼, 당락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향후 당을 운영하고 대권을 준비해야 하는 이재명 전 대표로서도 '호남 성적표'는 신성쓰이는 부분이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호남에서 표를 많이 받는 주자들 순으로 순위가 정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호남 경선 이후 당선권인 5위권 '유력주자'가 정해지고, 이 같은 양상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당원 중 20~30%는 호남 출향민이거나 호남 표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호남 투표 결과는 더욱 절대적 수박에 얹힌다.

앞서 진행된 지역의 투표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민형배 의원으로서도 이번 호남 경선은 마지막 추격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21대 이후 3명의 후보들이 경선을 통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고, 호남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점이 패인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2022 최고위원에 도전했던 송갑석 전 의원은 광주 22.2%, 전남 14.5%, 전북 5.8%로 기대에 못미치는 투표율로 반전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하위권인 민 의원이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호남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1인 2표를 찍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전략적인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민 의원과 민 의원의 경쟁자에게 각 1표씩 투표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중요해진 셈이다. 앞선 2022년 최고위원 투표율은 광주 34.1%, 전남 37.5%, 전북 34.0%에 머물며 전국 평균인 37.9%에 못미쳤다.

또한 '천명 좌표짜기'도 호남 최고위원 탄생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 경선에서 천명 최고위원 주자들의 현재 득표율이 낮아 호남에서 "1번 투표 누구, 2번 투표 누구"식의 좌표가 짝하고, 이 같은 현상이 수도권 투표에서도 되풀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호남 후보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이재명 핵심 원의 인사가 광주를 찾아 특정 진영 주자의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당대회 중후반 '천명 좌표'가 최고위원 경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8일 오전 충남 공주 충남고통연수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후보들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전당대회 컨벤션효과 없어...지지율 국민의힘에 역전 당해

### 이재명 독주에 형식적 전대 광주시장위원장 선거 갈등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지지율이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 간 폭로전으로 균형을 치르기도 했지만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은 전국을 돌며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전당대회와 함께 치러지는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경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그룹인 원내와 원외 정치권이 극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민주당의 전체 전당대회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8일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앞선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25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

접 방식으로 진행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5%와 27%였다. 지난 22~24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선 국민의힘이 2주 전에 비해 6%포인트 오른 36%였고,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한 25%였다.

또 지난 18~19일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리얼미터 자동응답전화(AR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42.1%, 민주당 33.2%로 양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3.1%포인트) 밖인 8.9%포인트였다.

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 대한 주자급인 한동훈·나경훈·원희룡이 치열하게 경쟁했고, 한 대표가 승리하는 과정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등 극적인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제주·인천·강원·경북·대구·울산·부산·경남·충남·충북에서 전당대회를 치른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90%에 달하는 목표적인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형식적 전당대회'에 그치고 있다.

또 양부남(서구) 국회의원과의 강위원 더민주 혁신회의 상임대표가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경선을 두고 지나친 '내부총질'을 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광주지역 표심도 분열양상을 띄고 있다.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강 대표를 겨냥해 연일 SNS에 관련 글을 게재하고 있고, 강 대표도 맞불을 놓으면서 원내와 원외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8월 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첫 재판이 내달 27일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

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날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성남FC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최근 이를 불허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40724-중-173103호 <광고> 상무지구 BYC사거리 진료문의 | 062-381-3900 이제 광주스마일안과의원 에서 시력을 개선하세요! • 체계적인 진료시스템 • 풍부한 임상경험의 조용윤원장 •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과 광주 스마일 안과 Smile Eye Clinic 스마일수술/라식/라섹 드림렌즈 / 노안라식 www.smile-eye.co.kr